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독일 문화정책과 실천 사례

곽 소 연 아시아문화원 선임 큐레이터

본 브리핑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독일의 문화정책과 실천 사례를 소개하여,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최근 몇 년간 목도되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징후들은 인류가 예상했던 것 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행동을 촉구한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국가가 그 이행에 동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개인과 시민사회, 국가, 국제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주체와 사회 제반영역에서의 대응과 실천을 요구한다. 문화예술은 과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는 탄소를 배출하고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남김으로써 직접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의 건축과 경영 그리고 행사 운영은 자원을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며,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예술 부문은 기후위기 관련 대중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롤 모

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

본 브리핑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독일의 문화정책과 실천 사례를 독일 연방문화미디어청(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이하 BKM)과 연방문화재단(Kulturstiftung des Bundes, 이하 KSB)의 정책적 모색과 활동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 독일 연방문화미디어청(BKM)의 활동

BKM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 전략의 맥락에서 문화와 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모색해 왔다.

우선 BKM은 연방행정기관으로서 생태적인 기관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19년 유럽연합의 '친환경 경영감사제도(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이하 EMAS)'에 따른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조직 내 환경팀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관리담당자를 임명하여, EMAS 도입을 위한 준비와 기관의 환경경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미 독일 연방 문화재단을 비롯해, 베를린국제영화제(Berlinale), 베를린 축제(Berlin Festspiel), 그로피우스 바우(Gropius Bau) 등 독일의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이 EMAS 인증을 받으며 친환경적 기관경영과 행사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EMAS는 타 문화예술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BKM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이를 기금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자원 절약형, 친환경적 제작과 기관경영, 행사운동을 위한 지식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기금지원정책의 관점에서 BKM은 2020년부터 독일 연방의 문화예산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와 기관이 환경과 기후보호를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재료와 장비의 사용, 에너지와 자원 소비의 절감, 지속 가능한 행사운영 및 이동성 개념 등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BKM은 기금 수혜자/수혜기관의 회의체에서 생태적 경영과 기후보호의 문제가 정기적으로 논의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과 기후보호 관련 목표를 성과 관리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BKM은 지식의 생성과 전파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문화와 미디어의 지속가능성 행동 네트워크(Aktionsnetzwerk Nachhaltigkeit in Kultur und Medien)'를 통해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환경 문제 관련 선도적 활동과 경험을 축적하고 통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생성, 연결, 보급한다. 이 행동 네트워크는 문화 및 미디어 부문의 환경 문제에 대한 중앙 자문 기구이자 대화파트너로 기능할 것이다(aktionsnetzwerk-nachhaltigkeit.de). BKM은 2020년 '기후정의를 위한 문화정책 여름 아카데미(Sommerakademie für eine klimagerechte

Kulturpolitik)'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행정 및 문화기관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심화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지식의 매개와 교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도 했다(kupoge.de/sommerakademie). 이외에도 BKM은 문화 및 미디어 부문에서 환경과 기후보호를 위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은 지침서를 문화 일반, 사무 일반, 행사 운영, 영화, 여행, 건축 등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bundesregierung.de).

마지막으로 BKM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를 위한 전문 분야별 이니셔티브와 활동을 지원, 장려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 중 가장 선도적인 분야는 영화산업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원절약형, 친환경적 영화 및 시리즈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영화 기금지원규정에 자원 절약과 생태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는 2020년 2월 BKM의 발의로 영화와 TV 산업의 대표자들이 서명한 '영화와 시리즈의 지속가능한 제작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강조되었다. BKM은 오디오비주얼 콘텐츠의 생태적 제작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즉 영화 기금 지원지침에 환경적 최소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포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영화와 시리즈 제작을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준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화진흥기관(Filmförderungsanstalt, FFA)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ffa.de). 그 외에도 BKM과 협력하여 독일연방환경부와 하인츠 질만 재단(Heinz Sielmann Stiftung)은 2021년에 지속가능한 영화제작을 위한 새로운 영화상을 제정하였다. 20,000 유로의 상금을 시상하는 이 상은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작 방식을 실행한 영화 프로덕션에 수여된다(eisvogel-filmpreis.de). 이 상의 목적은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제작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표준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전문분야 중 박물관/미술관 경영에서의 기후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 일환으로 BKM은 지난 2021년 5월 독일의 박물관, 연방주, 관련 협회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박물관과 기후보호’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모든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 경영을 위해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독일 박물관 협회는 연방정부, 연방주, 지자체들과 함께 박물관에서의 기후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박물관 경영에서 지속가능성과 기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실천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이 워킹그룹의 활동과 개발 내용에 대해 주목해 볼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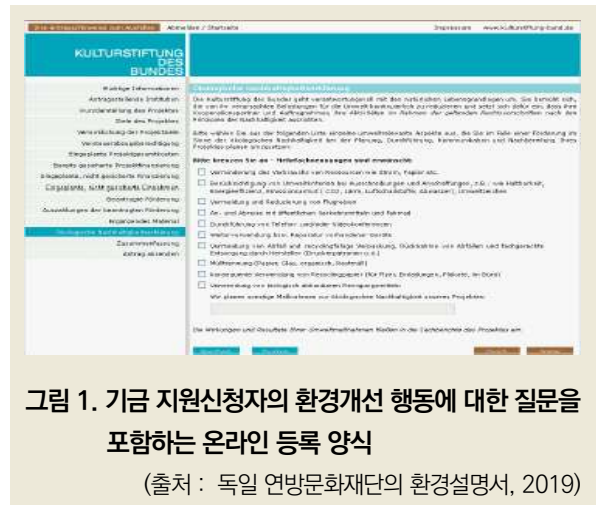
■ 독일 연방문화재단(KSB)의 활동

KSB는 기후와 환경 관련 주제 및 개선 활동을 주요 의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생태적 기관경영 및 기금지원정책, 시범 프로젝트 운영, 담론 생성과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이상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생태적 기관경영과 기금지원정책의 관점에서 KSB는 이미 2012년부터 유럽연합의 ‘친환경 경영감사제도(EMAS)’을 도입하여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의 자체적인 환경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전 직원이 친환경적 경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KSB는 기관 업무와 활동, 경영이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중요도와 통제 가능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환경영향요소는 폐기물과 탄소 배출, 물과 전기 등의 에너지와 자원 소비 등 기관 활동과 경영이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간접적인 환경영향요소는 문화예술 후원기관으로서 KSB의 고유 업무 및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적 관점은 기금 수혜 기관과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리 정책에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한다.

이런 맥락에서 KSB는 기금 수혜기관이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 지침을 계약내용에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KSB는 수혜기관에게 특정 금액 이상의 모든 구매 물품을 목록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물품을 유사한 후속 프로젝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계획했던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구속력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시범 프로젝트 운영의 관점에서 KSB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기후와 환경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체적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이미 2010-11년에는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과 협력하여 전 지구적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좋은 삶은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21세기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젝트 ‘삶의 예술에 대하여(ÜBER LEBENSKUNST)’를 진행하였다. 문화, 학문, 경제, 교육, 정치, 시민사회의 다분야 참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 관련 기존의 접근방식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다수의 이벤트와 행위, 설치를 통해 예술과 일상의 실천,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ueber-lebens kunst.org).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태적 지속가능한 문화생산을 위한 지침서(EINFACH! MACHEN. Ein Kompass für ökologisch nachhaltiges Produzieren im Kulturbereich)'가 개발되었고, KSB는 2020년 개정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지침서는 친환경적 프로젝트 실행과 기관의 변화를 돕는 매우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kulturstiftung-des-bundes.de).

그 외에도 KSB는 생태적,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다수의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2020년에 시작된 시범 프로젝트 '문화예술기관의 기후영향평가(Klimabilanzen in Kulturinstitutionen)'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후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문화예술기관의 기후중립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독일 전역에서 선정된 19개 문화예술기관은 4개월 동안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조사하도록 지원을 받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지식을 조직 내에서 전파하기 위해 특별 기후코칭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각 참여기관들은 각 기관의 탄소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활동 영역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탄소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개선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자문 하에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속에서 추진되었다. 참여 기관은 시각예술, 공연, 문학, 음악, 기억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사전 지식, 규모와 위치 조건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대표한다. 따라서 기관 유형

에 따른 특수한 경험과 지식이 모범적 사례로 타 기관으로 전파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평가, 경험보고, 권장사항, 작업 자료를 수록한 브로슈어가 발간되어 KS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KSB는 기후와 환경 주제 관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담론 생성과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SB는 공연분야의 협업지원프로그램 '더블 패스(Doppelpass)'의 일환으로 '극장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극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2019년에 개최하였다. 그 후속 행사로 2021년에는 공연예술에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온라인 '극장 기후워크숍(Klimawerkstatt Theater)'를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의 공연예술의 내러티브, 형식 및 제작 조건 등에 대한 미학적, 구조적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예술적 이동성과 국제적 연극 작업은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어떤 예술적 개념이 가능할지, 극장의 중요한 생태적 경영 수단은 무엇일지,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질문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논의되었으며 모범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워크숍의 기록 자료는 KSB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KSB는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베를린의 자원 이니셔티브들과 함께 '순환경제'를 주제로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9월과 10월에 개최된 워크숍에서 문화예술기관, 지역의 자원 이니셔티브 및 지자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원과 재료 순환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였다. 극장과 박물관, 박람회 등에서 처분되는 재료와 자원은 독립적 현장의 문화예술 제작, 예술가, 민간 사용자를 위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순환경제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수의 생태적 이점을 제공한다. 베를린,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후속 행사를 통해 토론과 정보 공유,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극장 기후워크숍' 프로그램 브로슈어 표지
(출처: '극장 기후워크숍' 프로그램 브로슈어, 독일 연방문화재단)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staatsministerin-fuer-kultur-und-medien>

Kulturstiftung des Bundes(독일 연방 문화재단) 홈페이지, Available :

<https://www.kulturstiftung-des-bundes.de>

Aktionsnetzwerk Nachhaltigkeit 홈페이지, Available :

<https://aktionsnetzwerk-nachhaltigkeit.de>

Kulturpolitische Gesellschaft E.V. 홈페이지, 'Sommerakademie für eine klimagerechte Kulturpolitik', Available :

<https://kupoge.de/sommerakademie>

Die Filmförderungsanstalt (FFA) 홈페이지, Available : <https://www.ffa.de/>

Eisvogel-Preis für nachhaltige Filmproduktionen 홈페이지, Available :

<https://eisvogel-filmpreis.de/>

Über Lebenskunst 홈페이지, Available : <http://www.ueber-lebenskunst.org/>

참고자료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2020). 2020 Nachhaltigkeitsbericht.

Kulturstiftung des Bundes(2019). Umwelterklärung 2019.

Kulturstiftung des Bundes(2021). Klimabilanzen in Kulturinstitutionen. Dokumentation des Pilotprojekts und Arbeitsmaterialien.

Die Bundesregierung(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Available :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소연(202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독일 문화정책과 실천 사례”.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8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곽소연 soyeangoak@gmail.com
ACKIS브리핑 작성 2021.12.30.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기후변화
#환경 #생태 #문화정책 #독일